

1 개요

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제주시 도련동 출신 이계징(李啓徵) 관련한 전설이다.

2 내용

이락당(二樂堂) 이계징(李啓徵)의 며느리가 억울한 일이 있어 그 시아버지에게 청원을 했다. 시아버지가 일어나서 그 집에 다녀오더니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에게 아주 욕을 해주고 왔다고 하였다. 며느리가 궁금하여 무슨 욕을 했는지 물었다. 그러자 이계징은 사람이 아니라고 욕을 했다고 했다. 사람에게 사람이 아니라는 욕은 욕 중에서 큰 욕일 수 있다.

3 특징

이계징(1840~1914)은 제주시 도련동(道蓮洞) 매촌(梅村) 출신이다. 노사(蘆沙) 기정진(奇正鎭)에게 배웠다. 집은 가난하였지만 학문을 좋아하여 당시 글씨와 문장으로 이름을 날렸다.

이 전설은 예(禮)가 아니면 보지 말고, 듣지 말고, 말하지 말고, 움직이지 말라는 유학의 교훈을 몸소 실천하면서 한편으로는 일상과의 소통에는 매끄럽지 못했던 조선시대 선비의 모습을 이계징이라는 실존인물의 일화를 통해 보여준다.

4 핵심어

이락당, 이계징, 욕, 도련동

5 원전 서지사항

“사름 아니”라는 욕(오성찬, 《제주의 마을 함덕리》, 도서출판 반석, 2002)

6 관련 자료